

시민 누구나 AI 전문 인력 도전하세요

광주시·AI사업단

일반인 대상 AI특화 맞춤형 교육
교육생 상시 모집·비용 전액 무료

광주시가 일반 시민 누구나 인공지능(AI) 전문 인력에 도전할 수 있도록 'AI 특화 맞춤형 교육' 대상을 확대한다.

20일 광주시 산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AI 특화 맞춤형 교육'에 참여할 직무 전환 교육생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

'AI 특화 맞춤형 교육'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추진 중인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중단지 조성사업 중 하나이며, 개인별 직무능력을 기반으로 한 직무설계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AI 직

무 전환을 희망하는 교육생의 역량을 강화하고 AI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이번 교육 대상자 확대를 통해 AI 기술발전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시민들에게 AI 분야로의 전환 기회를 제공하고, 이미 AI 분야에서 근무하는 이들에게 기존 업무에 AI를 접목해야 하는 재직자에게는 역량 강화의 기회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교육생들은 개별적으로 1대1 직무설계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커리큘럼은 개인 커리어패스와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AI 분야의 5개 직군 및 12개 직무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 받게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과정은 비전공자부터 숙련자까지 각자 수준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입문, 기초, 심화, 응용 단계로 구성돼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컴퓨터비전/영상처리 ▲자연어 처리/음성인식/음성합성 ▲자바·파이썬 ▲프론트/백엔드 ▲AI플랫폼·인프라 ▲AI 비즈니스 등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 참여는 AI 분야로 직무 전환을 희망하는 재직자나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친 참가자에게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서 수료증을 수여한다.

AI 특화 맞춤형 교육 신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운영하는 AI 융합 아카데미 포털(portal.atops.or.kr/lms)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AI 특화 맞춤형 교육 운영사무국(010-8454-406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중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광주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의 핵심을 이루는 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AI 직무 전환 교육을 준비했다"며 "인문 예술 등 비전공자도 맞춤형 교육을 통해 AI 분야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열차 안전운행의 날' 캠페인 광주도시철도공사 임직원들은 최근 광주시 서구 농성역에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열차 안전운행의 날 캠페인'을 진행하고, 도시철도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 열차 출입문 기임 사고 예방 등 안전한 하차철 이용 안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공사의 청렴 경영 등을 홍보했다.

도서관서 문화행사 즐겨요

광주시립도서관 독서의 달 9월 작가강연·인형극·포토존 등 운영

광주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디지털정보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펼쳐보자 책도, 꿈도'를 주제로 도서관에서 책과 더불어 즐길 수 있는 강연, 체험, 전시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무등도서관은 '어른의 어휘력' 저자 유선경 작가의 강연을 시작으로, '마음버스' 김유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 팸아트: 다시 태어나는 책, 한 땀 한 땀 북커버 만들기, 도서관 속 사진 맛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직도서관은 '이야기 속 동물의 비밀'을 주제로 한 난주 작가와의 만남, 그림책 인형극 '유기견 영남이', MBTI로 '나'와 '타인' 이해하기, 주제로서 전시 등을 준비했다.

산수도서관은 '숲이 될 수 있을까?'를 쓴 한유진 작가와의 만남, 마크라메 공예, 그림책 '내가 예쁘다고?' 아트프린트 전시를 운영한다.

디지털정보도서관은 오디오북 다독자 이벤트 등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시립도서관에서는 또 9월 한 달 간 연체도서를 반납하면 대출정지를 해제해주는 '연체기록 지우개', 매주 수요일에는 대출 권수를 두 배로 늘려주는 '두 배 대출' 공동 행사도 진행한다.

행사별 일정 확인과 참여 신청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등(062-613-7727), 사직(062-613-7772), 산수(062-613-7814), 디지털정보(062-613-7767)로 문의하면 된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9월 독서의 달 행사로 시민들이 책 읽는 기쁨을 누리고 도서관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환경공단 임직원 심폐소생술 교육



광주환경공단 임직원들이 최근 여름 폭염에 따른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주민세 꼭 납부하세요

고지서 없이도 전 금융기관 가능

광주시는 "올 7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단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주민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

능하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은행 업무시간 외에도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시스템) 앱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지원

광주시 시설 설치비 최대 90%까지

광주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오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대기배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노후 방지시설과 부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을 최대 90% 지원한다. 방지시설 종류에 따라 최대 5억6000만원, 공동방직시설의 경우 7억2000만원 등 보조금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장 하남산단 내 배출업체 170곳에 대해 56억원을 들여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모집 사업장에 대해서는 잔여 예산 16억원을 지원한다.

잔여 예산 지원 대상은 하남산단 내 사업장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른 1-5종 중소·중경기

업 사업장이 우선 지원되며, 지역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배출업체 4-5종 사업장도 해당된다. 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의무 대상 사업장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우편 또는 방문(광주시 환경보전과)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 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 10월 중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관련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내용 문의는 광주시 환경보전과(062-613-4152)로 하면 된다.

나병춘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기배출업체 주변의 대기질 및 악취를 효과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업과 시민 모두 만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사업장의 적극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에서 생산한 계란 안심하고 드세요

보건환경연 검사 260건 모두 적합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7월 지역에서 생산·유통된 달걀, 메추리알 26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계란(달걀)은 천연 방어막(난각)이 있어 안전하게 보이지만, 난계대 감염 등에 따른 병원균과 항생제·살충제 성분이 섞여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원의 설명이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정기적으로 계란 등을 수거해 항생제·살충제 등 잔류물질과 식중독균인 살모넬라를 집중 검사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현

제까지 부적합 제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유통업체가 직접 의뢰하는 위탁검사 제품도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돼 광주에서 생산·유통되는 계란 등은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의 난각(겉껍데기)에는 사육환경, 농가정보, 산란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숫자 표기가 돼 있다.

윤병철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광주에서 생산·유통되는 계란 등 축산물은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난각 위에 새겨진 녹색 안전 표기를 꼭 확인한 후 소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